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2003년도 표어 ◎

생명의 성령이여 삶의 주인이 되소서 (롬14:17)

◎ 행동지침 ◎

- 1. 역사의 주권자를 보자
- 2. 임마누엘의 삶을 살자
- 3. 생명 살리기 운동에 동참하자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 seoulchurch.or.kr

소신지서 강해
-요엘서-

네 마음을 찢으라

(요엘 2장 1 - 27절)



이중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회개를 통해 자기 갱신이 시작되면 교회가 변화되고 마침내는 복음이 퍼져나가 사회가 개혁됩니다. 1907년에 이러한 놀라운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이것이 3.1운동으로 연결되어 물산장려운동, 금주, 금연운동이 사회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회개운동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날을 선포하십니다.

1915년에 팔레스틴 지역과 수리아 지역에 메뚜기 재앙이 일어난 일이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날은 메뚜기 재앙보다 더 무섭습니다.

1. 잊을 수 없는 날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와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라”(11절)

요엘 선지자는 미래에 당할 일을 예언합니다. 요엘 1장에는 조상들의 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강에서는 여호와와 날을 말씀합니다.

여호와와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그 날은 고통의 날이고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는 날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므깃도 평원에서 선악간에 싸우는 아마겟돈 전쟁을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날은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확실하게 드러나는 날입니다.

역사는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역사관입니다. 역사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지금은 심판이 연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다”(2절).

하나님의 날은 어둡고 캄캄한 날이 재앙의 날이며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날은 갑자기 임합니다.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또 한 사람은 버림을 받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깃들을 갈다가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또 한 사람은 버림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미래 사건이지만 갑자기 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많고 강한 백성은 바벨론 군대나 앗시리아 군대일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심판하심을 의미합니다.

여호와와 날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그 날에 바위 뒤에, 산 아래 숨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겠으나 아무 소용없는 일입니다.

2. 진정한 회개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12절).

여호와와 날은 이제 임박한 미래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요엘은 그 날이 오기 전에 회개하라고 외칩니다. 여기서 요엘은 마음을 강조합니다. 옷을 찢는 것은 비애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요엘 선지자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며 애통하라고 합니다. 외형적인 변화도 회개의 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내적인 변화가 없는 외형적인 모습은 오히려 위선이 될 뿐입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근거는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 하시며 인애가 크시기 때문입니다(13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합니다. 우리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는 짐승과 다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금식하는 것은 개별적인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를 구체적으로 들어서 용서를 비는 것입니다.

또한 울며 애통하는 것은 죄를 슬퍼하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를 깨닫고 진정으로 슬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상한 심령입니다(시 51:17).

회개(repentance)와 후회(remorse)는 다른 뜻입니다. 후회를 한 대표적인 사람은 가롯 유대입니다. 그는 은 30에 예수님을 판 것을 후회했습니다. 후회는 사람 앞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는 하나님 앞에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회개는 다시 돌아오는 것이며 라틴어로 회개는 마음이 변한 것을 말합니다. 회개는 회심한 사람이 마음을 바꾸고 행동을 변화시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회개(repentance)와 후회(remorse)는 다른 뜻입니다. 후회를 한 대표적인 사람은 가롯 유대입니다. 그는 은 30에 예수님을 판 것을 후회했습니다. 후회는 사람 앞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는 하나님 앞에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회개는 다시 돌아오는 것이며 라틴어로 회개는 마음이 변한 것을 말합니다. 회개는 회심한 사람이 마음을 바꾸고 행동을 변화시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금식하고 울고 애통하며 회심하며, 마음을 찢고 변화시켜 회개를 요구합니다. 이럴 때 영적 회복이 가능하게 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 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13절).

사람이 변하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는 노하기를 더디 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제라도 돌아와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교회에 대부흥 운동이 일어날 때에는 먼저 각성의 시기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듣고 이것을 효과적으로 공부하면 개인적인 회개운동이 일어납니다. 회개를 통해 자기 갱신이 시작되면 교회가 변화되고 마침내는 복음이 퍼져나가 사회가 개혁됩니다. 1907년에 이러한 놀라운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이것이 3.1운동으로 연결되어 물산장려운동, 금주, 금연운동이 사회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회개운동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15절).

나치 정권이 세계를 확보할 때 모두가 침묵하고 굴종했지만 교회는 목숨을 걸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아인슈타인은 “나는 교회가 이렇게 위대한 힘을 가진 줄 일찍이 몰랐다. 나는 교회를 존경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회의 질서가 깨어지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이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민족이 가야 할 길을 제시하며 옳은 말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우리는 먼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개인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해야 합니다.

요엘 선지자처럼 마음을 찢어 회개할 것을 외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설날에 가족과 함께 드리는 예배

1. 예배 순서

목성찬	도시송	시편 121편 1~3 101장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기도(또는 사도신경)			가족중(다함께)
성경봉독		출애굽기 20장 4절~6절	인도자
설찬주기도문		하나님께만 예배하라 102장	인도자 다함께 다함께

2. 메시지

하나님께만 예배하라

(출 20:4 ~ 6)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 사대 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 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출 20:4 - 6)

제 2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고 미신을 믿지 말라는 말로 집약할 수 있습니다. 우상을 만들거나 그것들에게 예배하는 것을 금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1.우상을 섬기는 일은 모순이다

우상을 섬기는 일은 가장 부자연스러운 모습을 가져옵니다.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것으로 말도 하지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죽은 것인데 무지한 사람들이 그것들을 향하여 절을 하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인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어려우므로 보이는 것을 만들어 놓고 그것들을 섬기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상을 섬기는 일은 몰이해한 일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의 수단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며, 십자가는 하나님의 참사랑을 목상하게 하는 수단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에 무슨 효험이 있는 것처럼 그 앞에서 기도하면 재앙이 물러가는 줄로 착각합니다.

2.우상이 생기는 이유

우상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인격신인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피조물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피조물을 섬길 때 우상이 생기게 됩니다. 인간은 영원한 피조물이며 창조주 하나님을 섬겨야 할 존재입니다.

피조물 가운데는 자신은 물론 조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상을 섬기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한자권(漢字圈)에 속한 몇 나라와 아프리카의 몇 부족들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못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제사를 민족 고유의 문화라고 합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는 다른 것을 향하여 절을 합니다.

3.하나님께만 경배해야 하는 이유

하나님은 영이시므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합니다. 또 말씀대로 예배하고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깨끗하고 완전하게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만 경배하면 우리는 절대로 타락의 자리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적이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경배하면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만을 사랑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사랑하거나 그것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진노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은혜의 율법을 주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고 피조물을 섬기지 말라고 하십니다.

민족적으로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이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만이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들과다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미국 이민 선교 100주년 기념

청교도 세미나 열린다

3월12일(수)~15일(토)

미국이민 선교 100주년 기념 사업회 (회장 이원상 목사)와 우리 교회의 KIMCHI가 공동 주최하는 청교도 신학 세미나(준비위원장 오정수 장로)가 3월12일부터 15일까지 우리 예배당에서 미국에서 목회하는 한인 목사 70여명을 초청하여 열기로 하고 이를 계획 추진 중에 있다.

해마다 열리는 KIMCHI 신학세미나의 일환으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맨손 들고 100년 전 미국으로 가는 이민 선을 탔던 우리의 선배들을 기억하고 오늘 한국교회의 책임을 다짐하게 될 것이다.

성경통독 사경회 개최

1월31일, 2월1일 양일간

매년 설 연휴를 말씀과 함께 하는 아름다운 전통을 가진 우리교회는 올 설 연휴에도 성경통독 사경회를 개최하여 더욱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

이번 성경통독 사경회에서 읽게 될 범위는 지혜서 및 소선지서를 중심으로 읽게 되며 본 교회 1층 웨스트민스

터 홀(101호)에서 1월31일은 오전 8시에 개강하여 오후 5시까지 2월1일은 오전 8시부터 정오(12시까지) 계속된다. 1월13일은 중식도 제공된다.

현재 사무국에서 접수받고 있으며 참가비는 10,000원으로 정해졌다. 말씀을 사랑하는 갈급한 성도들의 많은 신청을 기다린다.

고등부 겨울 수련회 · 교육1국 겨울 성경학교

고등부: 1월27일(월)~29일(수), 교육1국: 2월24일(월)~25일(화)

고등부(부장:오광환 집사) 겨울 수련회가 내일(1월27일월요일)부터 29일(수)까지 3일간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소재 <이천 산림 휴양원>에서 <다니엘이 되자>를 주제로 열리게 된다.

수련회에 참석할 이들은 1월27일(월) 오전 8시 30분까지 교회로 모이기 바람겨 성경찬송과 같이 입을 옷, 세면도구 그리고 은혜 받고자 기도하는 마음을 준비하기 바란다.

회비는 20,000원이다.

또한 교회 교육1국(국장: 오정수 장로)겨울 성경학교 일정이 확정되었다. 자세한 일정 및 주제는 다음포와 같다. 어린이들의 신앙교육을 담당하여 기초를 세우는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육1국 겨울 성경학교가 은혜 가운데 준비되도록 기도한다.

부서	주제	기간	장소	강사
유치부	우리는 이렇게 예배해요	2월24일(월)~25일(화)	706호	이중윤 목사 · 이규정 목사
유년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	2월24일(월)~25일(화)	102호, 702호	이중윤 목사 · 조대영전도사
초등부	우리는 이렇게 예배해요	2월24일(월)~25일(화)	701호	이중윤 목사 · 김희정 전도사
사랑부	우리는 이렇게 예배해요	2월 9일(주)	102호	이성득 목사

유년부 학부모회 구성 및 학교별 전도대 파송

유년부(부장: 신용식 집사)에서 학부모회가 구성되어 오늘부터 시작한다. 유년부 학부모회는 회장에 송희숙 집사, 부회장에 박선희 성도와 25명의 임원진으로 구성되었다. 학부모회는 기도회, 축구전도, 홈페이지 활용, 기도 선교사 양성, 다함께 가족예배 드리기, 찬양대의 활성화, 가정예배 드리기, 어린이 교구활동, 방과 후 활동, 어린이 독서지도 등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유년부 어린이의 학부모이면 누구나 회원자격을 갖게 되어 협력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유년부는 초등학교별 전도대를 구성, 본격적인 전도를 시작하게 된다.

전도대명	리더	대원
도곡초등	신용식	부장, 부감, 지휘, 반주 교사
대도초등	이종창	신입반, 예비교사 전원
대치초등	나기태	1학년 교사
대현초등	위성남	2학년 교사
대곡초등	윤승희	3학년 교사

비전2020운동 및 농어촌 100교회운동 후원자 접수 중

2020년까지 전 국민의 75%를 복음화 하기위해 군부대 선교를 후원하는 비전2020운동과 농어촌 미자립 교회를 돕기 위한 농어촌 100교회운동에서 후원자를 계속 접수하고 있다. 후원을 원하는 성도들은 사무국으로 접수하기 바란다. 비전 2020운동은 1구좌에 3,000원이며 농어촌 100교회운동은 1구좌에 10만원이며 반구좌도 가능하다.

신혼가정부 특강

이운진 권사를 강사로 1월26일(주) 오후 3시30분에 신혼 가정부에서는 「엄마와 아기의 건강」을 주제로 한 특강을 갖는다. 706 호에서 있을 예정이며 많은 성도들의 관심을 부탁한다.

2003년 위원장에게 듣는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위원장

성준경 장로(예배위원장)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전10:23~24)”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전10:31)”

우리가 세상에 사는 것은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의 표현 중에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예배당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는 모습은 우리의 몫입니다. 예배에는 기도와 말씀과 헌금과 찬양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 순서를 담당기 위하여 맡은 분들이 구별되어 있으나 실은 예배는 온 성도가 함께 드리는 것이므로 우리 모두가 예배위원입니다.

빨간 옷을 입고 안내하는 안내위원들이나 가운을 입고 헌금을 담당하고 있는 헌금위원들이나 앉아있는 성도들 모두가 예배를 위하여 한자리에 한 마음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 없이 안내위원들만 예배드릴 수 없으며, 온 성도들이 일어나 모두 헌금위원으로 봉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에 참여하고 있으므로 내게 편한 자리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양보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안내하는 분은 성도가 앉고 싶어 하는 자리에 안내해야 할 것입니다. 모순된 것 같으나 이렇게 서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 생각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예배위원들이 겸손한 마음과 자세로 교회를 섬김으로 보다 질서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 경건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온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하며 노력하는 예배위원회가 되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어린이 찬양예배 찬양대 신설

우리교회는 어린이들이 말씀 안에서 온전히 양육 받도록 주일 어린이 찬양예배와 수요 어린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중 매주일 오후 5시에 102호 미스바 홀에 모이는 어린이 찬양예배부에 올해 처음으로 찬양대(지휘: 김양연 집사, 반주: 조현정 성도)가 신설되었다.

20여명의 어린이로 구성된 찬양대는 유년부 초등부 찬양대와 함께 어린이 찬양발전에 한 몫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매주일 오후 4시 그리고 예배 후, 토요일 등 3번의 연습을 가지게 되며 학부모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어린이 수요예배 장소 변경 >
매주 수요일 오후 5시 603호에서 드립니다.

고역자 가정을 찾아서

(임규현 목사님 가정편)



올 해 에바다부 전임목사로 청빙되신 임규현 목사님은 농아인으로 장신대신학과와 신

대원 졸업 후 여러 농아인 교회를 시무하신, 농아인을 위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린 분이시다.

목사님은 5세에 소아마비에 걸리시면서 열병을 앓아 청력을 잃어버리신 중도장애우이다. 소아마비는 치료가 되었지만 청력은 거의 잃게 되었다. 선회학교(현 한국농아학교) 졸업 후 평범한 직장에 다니면서도 항상 목회자의 길을 꿈꾸며 기도하시던 임 목사님이 처음 목회자가 되고 싶다는 뜻을 밝히셨을때 철저한 불교집안의 중가집 장남이었던 아버님께서 절대 반대를 하셨다.

그러나 그 뜻을 굽히지 않으시고 사모님과 함께 부모님께 극진히 효도하며 기도하여 영으로나 육으로 흠잡히지 않도록 노력하셨기에 4년만에 허락하여 주셔서 이 길로

들어설 수 있었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현재 제사를 추도 예배로 바꾸시고 아버님과 열마전에 돌아가신 어머니님 두 분 모두 집사님이 되셔서 정작 목사님 내외분 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셨다.

임 목사님께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를 여쭙자 아들 진호(11살)가 자폐아로 관심을 받았을 때라고 하셨다. 자폐아는 부모와 많은 대화를 나누어야 빨리 치료가 되는데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농아인이시기에 언어 발달 과정을 놓쳐버려 진호에게 가장 미안하다는 말씀도 함께 하셨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은 일반학교에 진학하여 공부 할 정도로 많이 나아졌다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셨다.

서울교회 에바다부에 부임한 후 너무나도 훌륭하신 이종운 목사님 밑에서 함께 일할 수 있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주일 2부 예배시 건청인(일반인)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은 농아인과 건청인 사이의 벽을 허무는 일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이종운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너무도 심오하고 어려워 농아인들이 이해하기에 다소 힘이 들지만 매주일마다 목사님의 설교가 기대되신단다. 그리고 교회 홈페이지의 목사님 설교 말씀 동영상과 함께 수화통역 동영상을 함께 준비해 주시면 더욱 많은 농아인들에게 전도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또한 아직도 많은 농아인들이 서울교회에 에바다부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면서 에바다부 자체에서 일원동과 수서등지에 살고 있는 많은 농아인들을 전도 할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나름대로 계획하고 계신다. 그래서 향후 5

년내에 에바다부 학생 100명으로 기도하고 계신다. 또한 양적 성장에 치우쳐 흑시라도 질적 성장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하신다.

현재 수화통역반 교사들은 돌아가면서 저녁예배, 수요일예배 수화 통역을 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교사들의 수화 통역의 실력을 높이기 위한 훈련과정이다. 기독 건청인들의 수화 통역 능력의 향상은 농아인 전도에 큰 힘이 된다고 수화를 잘 하는 기독 건청인의 도움은 농아인들의 법률 문제, 의료문제, 교육문제, 취업문제 등 어려운 점을 모두 해결 해 줄 수 있고 이것이 바로 전도로 연결 되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신다.

거의 건청인처럼 이야기하시고 이해하시는 다정하신 김복순 사모님과 명랑하고 궁급한 것이 너무도 많은 지선은, 올해 중학교에 진학한다. 귀여운 진호(초등학교 4학년)와 함께 가정예배 드리실 때 가장 많이 부르시는 찬송은 305장으로, 임 목사님은 사절에 분바람이 불어있는 것처럼 화목한 가정을 위해 기도하신다.

임 목사님 내외를 뵙고 돌아오면서 농아인 영혼 구원을 위해 이 가정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뜻에 감사를 드렸다. 유은경(편집부)

하나님! 저에게 용기를 주세요

박선영(중등부 회장)



먼저 부족한 저에게 중등부 회장이라는 책임을 맡겨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중등부 회장이 되고 나서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또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는지, 저를 통하여 중등부에서 어떤 일들을 하시려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음악을 하기 때문에 늘 시간에 쫓겨 교회의 행사에 좀 더 열심을 내지 못했고, 무언가 부족한 듯한 저의 교회생활이 새삼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뿐입니다.

하지만 지난 1년간 학교에서 선교부장을 했기에 그 경험을 살려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한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또 다른 임원 친구들과 협력하여 중등부를 섬기므로 하나님께 칭찬 받는 중등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회장직을 맡기시고 혼자 두시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항상 함께 하시며 힘과 용기를 주실 것이고 지혜도 주실 것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며 맡겨진 일들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부족한 저를 위해 많이 기도해 주세요.

어린이 한복 있습니다

나눔의 집은 우리 교회 성도들은 물론 이웃의 형제와 작년도 아시아 로잔대회 때 목사님들과 목회자 신학세미나에 오신 국내 목사님들도 이것은 내게 필요한 물건인데 저것은 누구를 사다줘야지 하시며 초대교회와 같은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아무리 좋은 금은보화도 주인에게 쓰여 지지 않으면 아무 쓸모 없듯이 각 가정에서 쓰여 지지 않는 물건들이 나눔의 집에서는 새로운 주인을 만나 아주 귀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필요한 의류, 가방, 신발, 그릇, 책, 생활용품이 모두 1,000원에 판매되며 또 물건도 접수받고 있습니다.

지금 나눔의 집에는 우리 교회 성도의 한복집에서 기증한 아이들 한복이 많이 있습니다. 한복을 사려고 하는 분이 계시다면 먼저 나눔의 집에 들려 주세요. 이번 설날을 맞아 아이들에게 좋은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나눔의 집(지하 3층)에 수요일 1부 예배후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오세요. 올해도 많은 협조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권사회 구제부

-에바다부 창립 2주년-

27일(월) 오후 7시 기념 감사예배

우리 교회 에바다부는 창립 2주년을 맞아 전국 농아인 교회와 기독 농아 지역자들을 초청하여 27일(월)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홀에서 감사예배를 드린다.

이날 설교는 이종운 목사가 담담하게 되며 농아인을 위한 수화통역은 홍유미 집사가 하게 된다.

등정

■ 이종운 목사는 28일(화) 전국어전도회 연합회 제 26기 회장단 수련회(37차) 강사로, 30일(목)에는 주기도문·사도신경 재번역 위원회를 소집한다.

■ 손영준 목사(협동목사, 영어 통역)는 73세의 고령으로 우리교회 협동목사직을 사임했다.

■ 이전개업: 한중호 집사, 김미혜 집사(10교구) (주) Gagmall 428-7411

■ 기증: 손명근 장로 정정희 권사 가정 경복 상주시 소재 임야 29,753㎡ 기증

■ 금주의 식사: 나옥녀 권사 가정

정정합니다. - 지난주 575호 순례자 동정란에 실린 이미경 성도는 이종운 목사의 셋째딸(삼녀)로 바로잡습니다.

■ 이종운 목사 방송설교 ■

■ 기독교방송(HLKY 98.1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 극동방송(HLKX 1188KHz)

생명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8시 10분 ~ 8시 40분

■ 인터넷방송 (· C3 TV - <http://c3tv.co.kr>)

· 호산나넷 - <http://hosanna.tv>)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설날에 하나님을 섬섭하게 하는 일 없도록
2. 겨울 성경학교, 수련회를 통해 은혜 받도록
3. 병상에 있는 환자들, 입시생, 실직자, 소외된 자들을 위하여
4. 북한의 핵 문제 평화롭게 해결되도록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 예배	I 부 오전 9시
	II 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 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일 예배	I 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일기도회	오후 9시 30분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약도 :

